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전개양상 연구

한상구*

<차 례>

1. 서론
2. 국채보상운동의 의연참여자 총수와 그 의미
3. 의연액 총액과 의연액 수준
4. 의연의 시기별 추이
5. 도별 참여 현황
6. 결론

【국문초록】

국채보상운동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로 보아서 214개군 677면, 한말 기준으로는 318개군 지역에서 대중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주요 참여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등 근기지역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그밖의 지역도 다종다양한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참여양상은 한말 조선왕조의 사회유지력 및 통제력의 지역적 범위를 한눈에 시각화할 수 있다. 총 참여자는 이 연구를 통해 대략 30여만 명으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개별 정보들은 참여자의 구성과 그들의 한말 조선사회에서의 위치와 위상, 운동력을 가늠하게 한다. 국채보상운동은 지금까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지 알려진 것과 달리 1907년 2월에 시작되어 사실상 7월에 종식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촉발과 종식의 시점 확인은 한말, 특히 1907년 고종 양위에 이르는 정치사의 숨은 그림을 찾게 한다. 의연의 총액은 그때 당시나 이후 많은 연구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18만 여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총액과 참여자들의 평균 의연 액수와 그 인원 등은 이 운동의 실제 의미가 다만 국채를 갚는다는 하나의 단선적 목표의 실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되기'라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아래로부터의' 자기 캠페인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참여자의 운동 이전과 이후의 행적들을 빅데이터 수준의 자료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이 운동의 진면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채보상운동, 집합행동, 애국계몽운동, 빅데이터, 정보처리

1. 서론

1907년 초 전근대 왕조 국가 조선에서 일찍이 상상할 수 없었던 대규모 '국민' 캠페인이 벌어졌다. 아직 '국민'이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과 사회조직의 근간 요소로 성립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국민'이 조선이라는 망해가는 사회에 거대한 모습으로 자기를 형상화하였다. 더구나 '국민'이 자기가 '국민'이라는 인식을 어떤가의 세력 -- 근대지향의 개혁적 지배집단, 선각적 지식인세력 등등 --에 의해 주입당하기도 전에 자신들을 '국민'이라고 동일화하고 일정한 행위양식을 단기간에 집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다시금 자신들을 '국민'으로 확인하는 집합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이름하여 '국채보상운동'이다. 이러한 국채보상운

동에 대해서는 그 운동이 당시나 그 이후에 가졌던 엄청난 아우라에 이끌려 적지 않은 연구들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채보사운동은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전환과 전변의 의미가 완전히 해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도 그 운동의 전반적 면모가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밝히겠지만 이 운동에는 물경 30여만 명, 당시 2천만이 안 되는 인구로 보면 구 왕조 조선의 신민들의 가구 수로 따져서 15~20%가 참여하였다. 지금까지 이러한 엄청난 참여자들을 사료상으로 직접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핸들링 하는 '기술'을 한국사학계는 시도하지도, 아니 시도하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연구의 현재 수준은 다만 그 운동의 시작과 결말, 눈에 들어나는 그 운동의 몇몇 주도자들과 그들의 행위 그리고 그 거대한 캠페인에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대중'들의 '눈물겨운' 헌신의 개개 행위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요약하는 범위 내에서 맴돌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참여자, 참여단체의 수, 지역, 의연의 총액과 그 수준, 참여의 기간과 시점 등등 가장 기본적인 운동에 대한 기초 사실들이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조차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 현재의 연구 모습인 것이다.

국채보상운동이 한국근현대사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참여자, 참여단체의 이름, 거주 지역이 낱낱이 밝혀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바로 그 30여 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이름들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고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참여자 명단이 텍스트화 되어 인터넷에 탑재됨으로 해서 그 현실적 제약은 노력에 따라 돌파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그 텍스트화 된 참여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소위 하나의 '빅데이터'와 방불한 자료 처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와 단체에 대한 정보처

리는 국채보상운동이 갖고 있는 거대한 사회사적 현상과 의미에 대해 학제 간에서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다만 국채보상운동만이 아니라 근대이행기, 한말-일제의 사회적 전변 전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잠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채보상운동의 의연참여자 총수와 그 의미

국채보상운동 참가자들의 이름과 의연액수는 제국신문, 만세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문, 경향신문에 명단형식으로 실려 있다. 의연자 명단은 2월 18일, 제국신문이 게재한 서울 정동(貞洞)의 고인(雇人) 25명이 20전씩 의연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08년 10월 31일 황성일보에 실린 황해도 봉산군 사원면의 156명을 끝으로 한다. 위의 5개 신문은 1907년 5월 14일 4200여 명을 위시하여 총 424일 동안 매일 평균 500여 명의 의연자 명단을 일반에 광고하였다.[1)]

이를 모두 취합한 결과, 〈표 1〉과 같이 전국에서 개개인의 이름을 밝히고 의연한 인원이 대략 26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실제 의연자 총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6월부터 한글판을 추가 발행하면서 의연자 명단 광고가 폭주하므로 한글판에도 명단을 싣겠다고 예고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중 1907년 6월분을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2)] 대

1)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일반기사 및 논설이 아닌 순수 의연자 명단은 제국신문이 1907년 2월 18일부터 폐간일인 동년 5월 14일까지 70회, 만세보가 동년 2월 26일부터 동년 6월 2일까지 67회, 황성신문이 동년 3월 2일부터 1908년 10월 31일까지 281회, 대한매일신보가 1907년 3월 3일부터 1908년 6월 26일까지 386회, 경향신문이 1907년 5월 3일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 12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한매일신보 한글판 7월 2일에 '남해군 애국상채사(愛國償債社)'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예고기사의 내용과 같이 6월간의 한글판에 의연자 명단이 적지 아니 실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판 7월에는 1만2천 명이 실려 있고, 6월과 7월 한문판에 각각 1만4천여 명의 명단이 있는 것을 보면 한글판 6월에도 대략 1만 명 정도의 명단이 게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서 개인명의로 의연한 인원수는 27만 명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의연자 명단에서 의연자 개인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 학교, 계, 문중 등 각종 단체/집합 명의 및 동중(洞中), 면중(面中)의 이름으로 일괄 의연한 경우가 총 1,63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단체/집합 의연에 참여한 인원수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다만 건수로만 파악해두면, 지역별 참여정도나 강도를 측정하는데 상당한 난점을 가지게 된다.[4] 이에 다소 무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단체/집합

---

2) 대한매일신보 1907. 5. 31 3면 '본사고백(本社告白)' 참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현재 인터넷상에 한말 신문들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보 한글판은 1907년 7월 2일 자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2007년에 발간한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자료집』은 국채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철저하게 원문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도 1907년 6월분 대한매일신보 한글판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3) 여기에 비록 인원수로서는 크지 않다하더라도, 지역에서 일차 의연이 행해졌는데 그 명단과 의연금이 사고, 편취 또는 시세의 변화에 따라 서울로 보내지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등도 있는 것으로 발견된다. 대구의 국채보상부인회에서 모은 의연금이 중간에 사라진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금액은 부인회장이 다시 대신 물어냈다고는 하나, 그와 관련된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7. 11. 27 2면 '횡징의금(橫徵義金)' 또한 함북 단천에서는 일찍이 600여 원을 모았으나 이후 단천군 국채보상소 재무원 등이 이를 "自己之物처럼 稱云 學校補助라 하며 欲爲乾沒"한 것이 고발되기도 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8. 1. 14 3면 및 1908. 12. 29 4면 참조.

4) 경북 성주군의 경우 개인명의 의연자는 54개 동리에서 2,700여 명인데,

의연 건수에 일괄적으로 특정 인원수를 곱하여 참여인원을 구하였다. 즉 동중은 1건에 24명, 면중은 93명, 동·면중을 제외한 단체/집합명의는 34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개인이름이 나오는 동리와 면, 단체/집합의 전국평균 참여자수가 동리단위는 24명, 면단위는 93명, 단체/집합은 34명으로 계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구하여진 참여인원수가 〈표 1〉의 '단체/집합 추정 의연자수' 4만5천 여 명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당시 신문에 보도된 의연명단을 가지고 추정을 가미하여 얻은 총 참여인원수는 31만7천여 명 정도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규모는 당시 인구 1700만 명[5]의 1.8%이다. 그런데 이들의 절대 다수는 성인남자이므로[6] 전체 인구 중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인구 510만 명[7] 중에서 보면 이 참여숫자는 성인남성의 5.4%이다. 이는 즉 전국적으로 성인 남성 20명 중의 한 명, 또

동중으로 의연한 동리가 147개소나 된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도 41개 동리에서 470여 명이 개인이름으로 의연하였는데 동중으로 의연한 동리는 147개소이다. 동리로 의연자 명단이 나온 이후에 같은 동리의 동중 명의로 추가 의연된 경우가 20여개 소에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동중전(洞中錢) 중의 일부를 의연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지만, 개인명단이 없이 동리명의의 의연은 반드시 동중전이라고만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동중은 그 참여인원수를 비정하여야 해당 군면의 참여강도를 측정할 수 있을 터이다.

5) 1900년대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1911년 총독부 인구통계인 1300여 만 명은 과소수치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1700만으로 비정하였다.

6) 의연자 명단의 부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은 대략 5,500명과 800명 정도이다. 이들을 제외한 인원은 성인 남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7) 국가통계포털 광복이전통계 http://kosis.kr/feature/feature_03List.jsp {1912년도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인구·가구-인구-현주 인구(연령별)'의 수치에서 20세 이상 남자는 전국인국의 30%로 계산되는데, 총인구의 증가와 는 별개로 이러한 비율은 1907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당시의 성인 남자를 총인구 1700만 명의 30%인 51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는 17가구 중 한 가구가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한 이슈, 그것도 국가적 이슈에 참여의 방식과 과정을 동일화하면서 보여준 이 정도의 참여율은 한국 근대 100년에서 쉽게 다른 예를 떠오르게 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것이라 할 것이다.

〈표 1〉 신문별 의연자 의연액수 현황 및 전국 총합

출전	개인 명의 의연자수	단체/집합 명의 의연자 추정인원	개인 명의 의연액(원)	단체/집합 명의 의연액(원)
경향신문	604	914	269	208
제국신문	9,839	772	3724	237
만세보	26,001	3,850	18,435	1,121
황성신문	110,367	19,373	70,775	6,146
대한매일	116,005	20,247	73,168	6,081
합	262,816	45,156	166,371	13,793
총합계	**307,972명** (대한매일신보 망실 한글판 수록 추정인원 1만여 명 별도)		**180,164원** (대한매일신보 망실 한글판 수록 추정 의연액 6천여 원 별도)	

3. 의연액 총액과 의연액 수준

의연자 명단으로 확인된 의연액 총액은 18만 여 원이다.[8] 국채

8) 의연금액이 판독 불가능한 990명의 의연액과 164명이 물건으로 의연한 은잠, 은수저 등의 가액은 여기에 제외되어 있다. 대구에서는 7,000여 환을 모집하였는데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고 대구 농공은행에 계속 예금해둔 었다는 기사가 있다. 황성신문, '대구기서(大邱奇書)', 1909. 10. 17. (4) 안동군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이 끝난 뒤, 1,600여환은 수합하여 두었다는 기사가 있다. 황성신문, '과즉불공(果則不公)', 1910. 7. 7. (5) 이들 기사에 따른다면 대구의 7,000여 환이나 안동의 1,600여 환은 단위 군단위에서 상당히 큰 모집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보다 상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의연자와 그 금액이 신문지상에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이하 의연금액과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아래

보상운동 의연총액은 당시에도 정확히 집계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진석은 당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부분적인 의연액 수관련 보도들과 일본헌병대 보고 등을 검토한 후에 대략 16만원 내지 19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9] 여기에서 한글판 대한매일신보 6월간에 추정된 1만여 명의 의연액을 간략히 추정하여본다면, 대한매일신보 한문판 6월, 7월이 각각 1만6천여 명에 1만여 원과 9천여 원의 의연액을 나타내고 있고, 한글판 7월이 1만3천 명에 7천여 원, 8월이 1만여 명에 5천4백여 원의 의연액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러한 비율에 따라 대략 6천 원 정도로 보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의연총액은 18만6천여 원 전후가 되는데, 이 금액은 정진석이 일본헌병대 보고로 인용한 18만7천여 원과 거의 근사한 수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밝혀둘 것으로서, 의연자 명단의 의연액의 단위는 원(元), 원(圓), 환(圜)이 혼란스럽게 섞여 쓰이고 있고, 구화 양(兩) 또한 1만5천여 명이 총 8만 냥을 의연하고 있는데, 원(元), 원(圓), 환(圜)은 메가다 화폐정리 이후 신화 원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았고, 구화 냥은 당시 신화와 5:1로 교환되었다는 통설에 따라 신화 원으로 환산하였다.[10]

개인별 의연액수 현황은 〈표 2〉와 같다. 대한매일신보(한문본)과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개인의연자 19만6천여 명[11]의 의연액을

〈그림 1〉과 〈그림 2〉에는 참여1등급지로 표시하여 두었다.

9) 신용하·조항래 등, 「국채보상운동과 언론의 역할」, 아세아문화사, 『일제 경제침략과 국채보상운동』, 1994, pp. 212-215.

10) 이는 함남 고원군에서 구화로 들어온 의연액 "已上 1,286량 元山서 交換하니 紙貨가 257원 20전"이었다고 한 기사에 의해서도 정확히 확인되고 있다. 황성신문, 1907. 7. 8 3면. 그리고 여기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전체 의연액의 10% 못 미치는 양(兩)의 사용빈도를 통해 1907년 당시 매가다 화폐정리 이후 구화의 전국적인 유통 정도를 추측하는데 한 가지 일반적 정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겠다.

11) 이 논문이 근거하고 있는 의연자수는 단체/집합을 제외한 〈표 1〉의 26만2천여 명이다. 그런데 이중 대한매일신보 한글판과 제국신문, 만세보, 경

〈표 2〉와 같이 7등분하여 각각의 도수와 모집단 인원수 내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면 10원 이상 의연자가 2,800여 명으로 모집단의 1%약, 1원 미만이 16만2천여 명으로 모집단의 83%이다. 이를 조금 더 세분하여 본다면, 가장 많은 의연액은 20전이 5만7천여 명이고 그 다음이 10전으로 4만1천여 명이다. 이하 30전이 1만9천여 명, 40전이 1만5천, 50전이 1만8천, 그리고 1원이 1만9천여 명, 2원이 7천여 명 순이다. 100원 이상으로는 75명이 잡히는데, 100원이 53명으로 가장 많고 200원이 6명, 그리고 300원이 4명, 500원이 3명, 1700원과 1800원이 각각 1명씩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단연 20전 이하의 소액 의연이 절대 다수 인데, 비록 소액의연이 모두 일반 농민이나, 하층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절대 숫자를 본다면 국채보상의연자의 주된 부분은 대다수 일반 하층 대중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하층민으로 추정되는 소액의연자가 절대 다수라는 사실은 국채보상운동의 성격을 가늠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국채보상운동을 대구광문회의 발기로 상징되듯 지식인, 자산가 계통의 애국계몽운동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나아가 이를 의병운동과 같은 보다 격렬한 또는 보다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대비하여 보고자 하는 경향이 현재까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절대 다수가 사회 하층민들로 구성된 이 운동을 경향적으로나마 애국계몽운동류로 제한하여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닌 것이다.

향신문의 개인의연자 의연액과 기타 명단상의 개인별 정보를 각개로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였다. 판독불능 등을 제외한 신문 명단상의 개인별 의연액과 각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인원수는 대한매일신보 한문본과 황성신문의 것을 중심으로 현재 19만6천여 명에 한한다. 이 인원을 통해 본 분석은 비록 전체 26만여 명의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 경향의 파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표 2〉 의연액 구분별 현황

의연액 구분	의연자수	의연자수/196,033(%)	의연액합
50전 이하	132,669	67.68	27,371
50전 이상 1원 미만	30,077	15.34	16,647
1원 이상 5원 미만	29,518	15.06	43,432
5원 이상 10원 미만	1,919	0.98	10,435
10원 이상 50원 미만	1,641	0.84	24,762
50원 이상 100원 미만	134	0.07	7,608
100원 이상 (최고 1800원)	75	0.04	13,869
합계	196,033	100.01	144,124

이 문제는 오히려 다액 기부자들의 비율을 검토해보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10원 이상 다액 의연자들의 숫자가 당시 그 정도의 자력을 가진 사람들 중 다수를 포함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판단을 내리기에 더 빠를 수 있겠다는 것이다. 10원 이상 의연자 2,800명을 추산 전체 개인의연자 27만여 명으로 환산하면 10원 이상 의연자는 3,800여 명으로 당시 전국 344개 각 군에 평균 10명이 안 되는 숫자이다. 이러한 숫자와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당시의 자산별 인구분포 자료가 불비한중에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상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과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를 상대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당시 학교 건립 등에 의연한 사람들의 참여정도와 의연액 수준을 살펴보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표 3〉은 1905~1906년에 학교관련으로 의연한 사례들을 모은 것인데, 그 참여자수와 의연액의 규모는 대체로 국채보상운동의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 흡곡군, 전북 무장군, 평남 자산군과 같이 작은 군에서조차 10원 이상 의연자가 18명, 28명, 68명이 나오고 있다. 벽지라고 할 함북 회령군에서는 100명이 넘어서고 있다. 의연액 또한 2~3,000원을

쉽게 넘나드는데, 국채보상운동에서 의연액이 2,000원을 넘는 군은 경북 성주, 경기 강화, 평북 의주 등 12개군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표 3〉의 각 사례의 의연자 총수는 1,800여 명인데, 이중 10원 이상 의연자는 477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 국채보상운동에서도 의연한 사람은 67명에 그치며 거기서도 10원 이상 의연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특정지역에 동원될 수 있는 자산가들의 상당수가 일반적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의 의연액이 가리키는 지점은 이 운동의 토대와 추력이 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보인다. 기실 당시 신문들은 자산가들의 미진한 참여에 대한 불만을 간단없이 드러내고 있기도 했다.[12]

〈표 3〉 1905~1906년 학교관련 의연자 및 의연액 사례[13]

내용(기사제목)	의연액	10원 이상의 연액합	10원 이상 인원	10원 미만의 연액합	10원 미만 인원	참여 인원합
○ 강원도흡곡군사립보통학교직원급찬성장찬성원성명여좌	1,342	1,084	19	258	100	119
○ 강원도흡곡군읍내보명학교제일회의연금	241	170	8	71	38	46
○ 고원군 다삼포 사립 진선학교 설립	370	231	12	139	37	49

1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볼 수 있다. "금번 국채보상에 대하여 가(?)鄕 인민과 부녀아동이라도 각자 출의하되 경성내 富客은 銅山을 고축하여 전토만 용수하니 단 穿利두하고 胸무타계하니 삼천리 강산이 부거하여도 동산전토를 구능독수할는지" 대한매일신보 1907. 3. 20 2면 '금향국채보상에 대하야' ; "함흥은 원래 풍패 대도이라 고가거부가 불체 10수인데 금차 국채보상에 대하여 즉 참봉 김湖溢씨는 자수성가하여 수칭 요호하나 불참 富人之列한데 출 신화 500원 하야 출의하였스니 고가거부는 천만원 불가예산이리 하더라." 대한매일신보 1907. 5. 15 1면 '김씨열심'

13) 각 사례 인원, 금액은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 황성신문에서 내용(기사제목)을 검색하여 취합한 것이다.

○ 황해도 해주 벽성의숙 임원급찬성원	1,283	1,260	15	23	28	43
○ 온양군 대동학교 찬성원의연금	475	440	12	35	10	22
○ 자산군 문성학교 의연 제여좌	2,850	870	68	1,980	439	507
○ 황해도 해주부 대녕학교의연금제좌개	2,174	2,159	90	15	6	96
○ 흡곡군 사립보통학교 찬성 보조인	122	12	1	110	32	33
○ 林川郡 長亭里 私立天英學校 義捐金	157	90	4	67	32	36
○ 茂長郡 私立 茂昌學校 義捐諸	1,396	1,245	28	151	41	69
○ 白川郡 私立濟東學校 義捐金總額	247	125	4	122	39	43
○ 全羅南道順天郡有志人-金貞鉉,與其郡守-李承宇로熱心注學에首先創校	525	389	21	136	39	60
○ 中和郡耶蘇敎私立小學校義捐金錄	289	244	14	45	24	38
○ 鐵原郡守羅壽淵氏	1,079	1,054	37	25	8	45
○ 會興學校義捐金額과人名	3,887	3,503	109	384	109	218
○ 인천항永化學校에 기부한 씨명금액	165	60	2	105	50	52
○ 平壤私立四崇學校趣旨及義捐金	1,168	724	37	444	101	138

4. 의연의 시기별 추이

의연은 실로 폭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일견 어떤 준비된 조직도, 선전도 없이 한 순간의 계기로 마른 잎 하나 불붙은 것이 들불로 타오르듯이 순식간에 범위와 강도를 넓혀갔다. 처음으로 의연자 명단이 보도된 1907년 2월 18일은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발의된 1907년 1월 29일로부터 약 3주 뒤이고, 이 사실이 제국일보에 최초로 보도된 2월 16일 바로 이틀 뒤였다. 이들 첫 의연자들은 유림, 신사, 학생, 어떤 지식인류가 아니라 어느 집의 고용인들 25명이었다. 그들은 이틀 전 대구 광문회의 국채보상발기에 찬성한다고 명기하면서 집단으로 의연을 하였다. 이후에도 제국신문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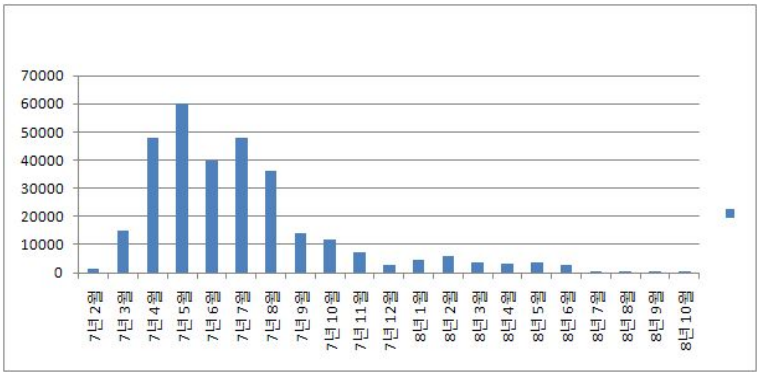
국채보상발기에 대한 어떤 후속기사도 없이 다만 10명, 77명, 86명의 의연자 명단만이 실리었다. 2월 23일에 가서야 대한매일신보가 서울에서 박승직이 의연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일반 보도기사를 내보였다. 분명 국채보상운동 최초기 1주일은 신문들이 일반인들의 의연참여 열기와 확장기세를 거의 쫓아가지 못하는 형국이었다.[14] 최초 명단보도 이후 불과 8일 만인 2월 26일 의연자명단은 200명이 넘었으며 3월 1일에는 300명, 3월 8일 500명을 돌파했다. 급기야 3월 16일 하루는 인천 남소동에서 회동한 103명과 서울의 孤兒 71명을 비롯한 2,200여명의 개인이름이 도하 제국, 만세, 황성, 대한매일신보에 실리고 있다. 이제 매일 4~600명의 명단이 게시되다가 4월 5일에는 드디어 1000명이 넘는 명단이 보도되고 있다. 이후 7, 8월까지 대체로 1000명을 넘는 의연참여자들이 각 신문을 통해 이름을 남겼다.

이를 월별 추이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907년 2월 약 10일 동안 1100여 명이 참여했고 3월에는 1만5천여 명, 이후 4, 5, 6, 7월에 각각 4만8천, 6만, 4만, 4만8천 명이 참여했다. 7월 중순부터 고종의 양위가 진행되고 31일 군대해산과 정미의병의 전개되는 등 급격한 정세변환을 거치면서 8월에 3만6천, 9월에 1만4천, 10월에 1만1천, 11월 7천, 12월 3천 명으로 의연자 명단 보도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

14) 이러한 급격한 양상은 비록 매우 짧은 찰라적인 기간의 현상이지만, 흔히들 민족주의 지식인 또는 언론의 근대기획과 그것의 대중 흡수와 조직이라는 일반 패턴과는 그 선후가 전도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지만, 국채보상운동의 전개는 다만 국채보상이라는 이슈와 그 기획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다양한 일반 대중이 여하한 이유와 역사·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적 판단수준 및 정서적 정향과 감수성의 측면에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고 본다.

〈표 4〉 월별 참여인원 추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참여자명단의 게재 시점이 의연이 이루어진 시점과 근사할 것이라고 언뜻 생각 들기 쉽지만 반드시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의연금의 송금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이 개별로 신문사나 중앙수금소에 의연금을 보내는 경우인데 이는 극히 소수에 그친다고 보인다.[15] 둘째로는 단체나 특정 집합, 또는 동리 단위로 의연금을 모아 다른 지역별 보상소 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신문사나 중앙

15) 동리, 군면이나 단체, 집합을 단위로 해서 개인 또는 극히 개인적인 결합으로 개별 의연한 것을 엄밀하게 판별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연자 명단은 대체로 지역단위나 단체, 집합단위로 정리되어 수록되는데, 지역이나 단체가 뒤섞여서 서너 명 또는 많게는 2~30명 게재되는 경우는 신문사에서 개별로 의연된 것들만 일괄하여 한데 묶어 실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로 보이는 것만 모으면 대략 1,000명 정도가 된다. 이것은 전체 의연규모의 1%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의연 참여자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든 집합을 이루어 일정 다수를 만들어서 신문사나 지역과 중앙보상소로 의연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보상소에 개별로 의연하고 지역보상소가 이를 지역단위로 정리하여 중앙으로 보내어 신문에 게재되는 경우는 도저히 판별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각 지역에서 의미 있는 수치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한다.

수금소로 직접 보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1907년 3월에 들어서자마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 주로 군 단위 국채보상소가 해당 지역에서 직접 의연금 모금활동을 한 내용이나, 지역내 동리, 단체, 집합단위 자발적 의연자들이 보내온 의연금을 사후에 단위별로 취합, 보관, 중앙송금 경우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문사가 명단 폭주로 다소 늦게 게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기간이 몇 달에 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 번째의 경우는 지역단위의 취합과 보관 등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여기에서 신문게재와 의연활동의 시간적 간격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1907년 8월 이후의 의연자 명단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진 의연행위의 결과인가라는 물음과 관련된다. 아래의 방증에 따라서 8월 이후 시기의 의연명단은 대체로 7월 이전의 의연결과의 지체된 보도로 판단된다.

당시 신문들은 의연자명단을 대규모로 싣는 것 외에 지역에서 올라온 기함(寄函), 기서(奇書)와 더불어 일반 기사로 열렬하거나 감동스러운 의연자의 사연을 뽑아서 거의 매일 보도하고 있다. 이들 기사의 내용은 보도시점과 매우 근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사는 1907년 2월에 19개, 3월 280여 개, 4월 240여 개, 5월 140여개, 6월 40여 개, 7월 11개의 양상을 보이는데, 8월 이후에는 거의 한 달에 1, 2개 정도로 급감한다. 기함, 기서와 사연 기사가 없다는 것은 지역에서 의연활동이 소진되어 간 것에 따른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연 기사의 주인공들의 이름과 의연액은 통상 1, 2개월 내에 의연자 명단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적지 않은 수가 1907년 8월 이후에 보도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1908년이 지나서야 명단에 실린 경우도 있다.[16] 그리고 7월 이후 대중 수준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추력이 떨어졌다는 직접적인

16) 1907년 4월 말에 창원항의 열성모금 부인 미담기사가 실렸는데 이들의 명단은 1908년 2월 16일에 나온다. 대한매일신보 1907. 4. 28 1면 참조.

증언이 있다.[17] 사실 고종의 양위와 군대해산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이후의 사회분위기는 분명 그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실질적인 진행기간은, 물론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적 차원에서는 1907년 2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도별 참여 현황

도별 참여현황을 도시하면 〈표 5〉[18]와 같다. 경기도가 7만7천여 명으로 단연 수위이고, 그 다음으로 충남, 경북, 경남, 황해

17) 해주군 국채보상소는 1907년 7월 이전에 의연명단을 신문에 게재하였는데 사실 그 당시 의연금이 실제로 걷히지 않고 이후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이름만 걸어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7월 정세가 일변하자 이들이 전연 의연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해주군 국채보상소는 1908년 6월에 이들 2,000명의 불납자를 제외한 실제 의연자 명단을 다시 게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주 국채보상소는 이러한 전후 상황을 공함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1907년 7월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 변화가 간명하면서도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조금 길더라도 전문을 인용해본다.
"국채보상사로 광무11년 3월 6일에 지원금지수소를 해주읍내에 설립하고 읍부인민이 호상권유하여 전지다소를 불구하고 성력의연함을 수하여 직전으로 수합하는데 혹 각면 각리장이나 혹 일개인이 시급의무로 認悉하나 辨錢猝難하여 추후 ?납할 의로 출의 각인의 성명을 책자에 열록하여 본지소에 래간하며 신문에 게포함을 요청이온바 사고 불시이오되 일반인민을 권면하는 의무의 불시지경에 지하면 지원자의 성의도 저퇴할 뿐 아니라 본지소 권면하는 본의에 위반할 듯하와 면강 허시하여 귀보의 게포하였더니 **작년 8월 이후에 각지방 소요 소치로 우매 인민들이 동정을 관망하여 계속 출의는 尙矣라 물론하고 이공포한 금액을 尙未刷來이옵기 以言以書에 누누 책유하되 收捧 沒責하여 세불이**(강조 필자) 직전으로 전후 수합한 실수와 성명 거주를 갱위 초록 정오 공포함." 대한매일신보 1908. 6. 16. 4면 '공함(公函)'

18) 〈표 5〉와 이하 〈표 6〉의 근거 수치는 다음과 같다.

도 순으로 2만 명을 넘는 의연자를 가지고 있다. 역순으로 보면 함북이 2천여 명으로 가장 의연자수가 적고 그 다음으로 평남, 함남이 5천여 명 수준이고, 평북, 충북이 1만여 명 수준이다. 전체적인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소위 근기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충남, 황해도가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이고, 서북지방이 상당히 낮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북지방의 이러한 모습은 이 지방이 일견 당시 애국계몽운동 계통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에 비하면 의외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자 절대수치를 가지고 참여도를 보는 것은

도	참여인원(순위)		도별성인남자인구 대비율(%)(순위)		의연액(원)	1911년 인구
강원	15,645	8	6.13	7	7,210	850,110
경기	77,808	1	17.89	2	38,991	1449,344
경남	25,058	4	5.74	8	16,221	1454,870
경북	31,520	3	6.34	6	17,445	1657,448
전남	18,900	6	3.84	11	12,513	1640,815
전북	14,438	9	4.97	9	9,283	968,929
충남	35,940	2	13.12	3	13,961	912,893
충북	11,957	10	6.73	5	5,693	592,653
평남	5,758	13	2.10	13	5,270	914,469
평북	11,893	11	3.97	10	9,436	999,022
함남	6,028	12	2.13	12	5,536	945,046
함북	1,984	14	1.52	14	1,955	435,995
황해	21,698	5	7.16	4	14,689	1010,782
서울	18,521	7	25.28	1	16,269	244,246
해외*	739				1,398	
관리/군인**	8,836				3,265	
지역미상***	1,249				1,028	

* 해외지역은 연해주 77명 12원, 미국 446명 1095원, 일본 216명 182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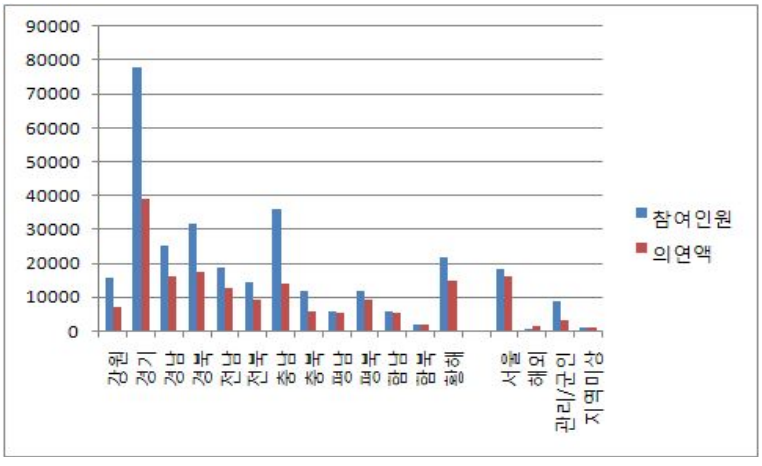
** 관리/군인에서 관리는 2,277명 796원, 시위대 및 지방 진위대 장졸 6,559명 2469원이다.

*** 지역미상은 판독불능 및 원 기사에 지역정보가 명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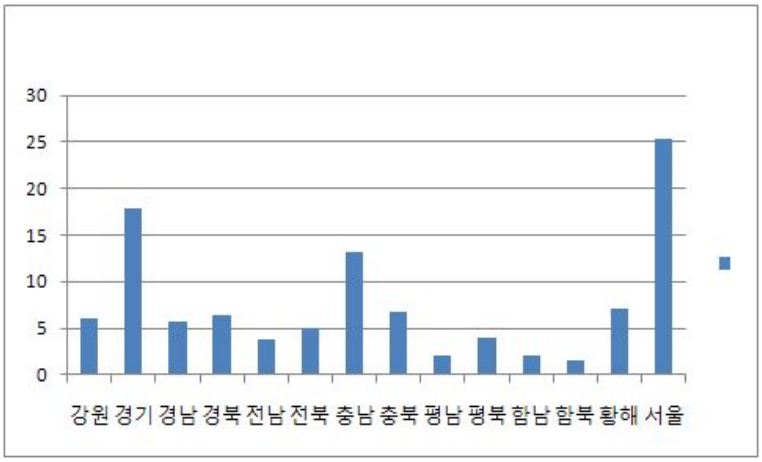
전국 각 군별 참여인원 산정과 의연금액은 첨부한 ≪군별 의연자 및 의연액 총합≫ 참조.

기본적으로 그 도별 인구규모라는 상대적 기준을 간과한 것이다. 도별 인구를 감안한 참여도를 보면 〈표 6〉과 같이 그 순위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좀더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인남자인구대 의연자 비율을 보면 결국 서울이 성인 남자 4명중 1명이 참여하였다는 대단히 강도 높은 양태를 보이고 있다. 관리들과 시위대 군인들 8천여 명은 거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합산할 경우에는 숫자상으로는 성인 남자의 거반 반이 국채보상운도에 참여한 것이 될 것이다. 서울 에 이어 경기, 충남이 6명 중 1명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6, 7%의 비율로 황해도와 충북, 경북, 강원이 차례를 잇는다. 경북을 빼면 지리적으로 근기라 할 도들이 모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역순은 절대수치 때와 같이 함북, 평남, 함남이 그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다소 특이한 것은 전남이 평북이나 전북보다도 못 미치는 저조한 모습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도별 참여인원 및 의연액 현황



〈표 6〉 도별 성인남자인구대 참여인원 비율(%)



이상과 같은 인상기적 관찰 지점은 사실상 모두 해명을 요구하는 점들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근기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여타 도와 비교할 수 없는 집중도와 광범성을 가지는 실 배경은 무엇일까.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과 경남은 예상외로 저조하고, 평남이 평북보다 미약한 이유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한편 이러한 해명은 모두 도를 단위로 제기되는 것인데 과연 도 자체가 그러한 이유들의 궁극적인 해명처인가가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도별을 넘어 각 도내 군별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것도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인상기적으로 먼저 일별해 보자. 먼저 참여자 절대치로 서울 1만8천 명을 위시한 25개 군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경북 성주 6,600명, 경기 수원, 광주 경남 하동이 5천명 수준이고 이어 경기도 양주와 강화, 경북 의성과 영천, 경주, 평북 의주가 4천명 수준이다. 이하 전남 영광까지 3천에서 2,500명의 참여자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군들은 경기

도 중부에 몰려있고 경북에 강도 높은 5개 군이 있는 모습과 아울러, 다소 분산적인 양상으로, 또는 지역 내 특이성으로 보이는 양상으로 경남의 창원과 하동, 전남의 영광, 충남 중부의 중소 군들, 그리고 황해도의 해주와 서흥, 멀리 평북 의주로 분포되어 있다. 다음 26번째에서 50번째 군들과 함께 살펴본다면 경기도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도 중서부, 황해도 남부, 충남북부로 뭉쳐지는 강한 근기적 특성이 이들 경남북, 전남, 평북의 25순위 내 군들과 함께 그 다음 순위의 경북 상주, 경남 밀양과 동래, 고성, 전남 강진 전북 정읍과 익산 등에 의해 완충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각 군의 인구비순[19]으로 보아도 대체로의 양상은 비슷한데, 눈에 다소 띄는 점은 절대수치의 경우와 달리 가장 높은 성인 남성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군들이 충남 중부의 신창, 온양, 예산 대흥에서 경기 남부 안성 죽산 양성으로 이어지는 좁은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절대수치에서 다소 두드러졌던 전남, 전북, 경남의 각 군들이 상대비율에서는 상당히 평범해지고 있는 모습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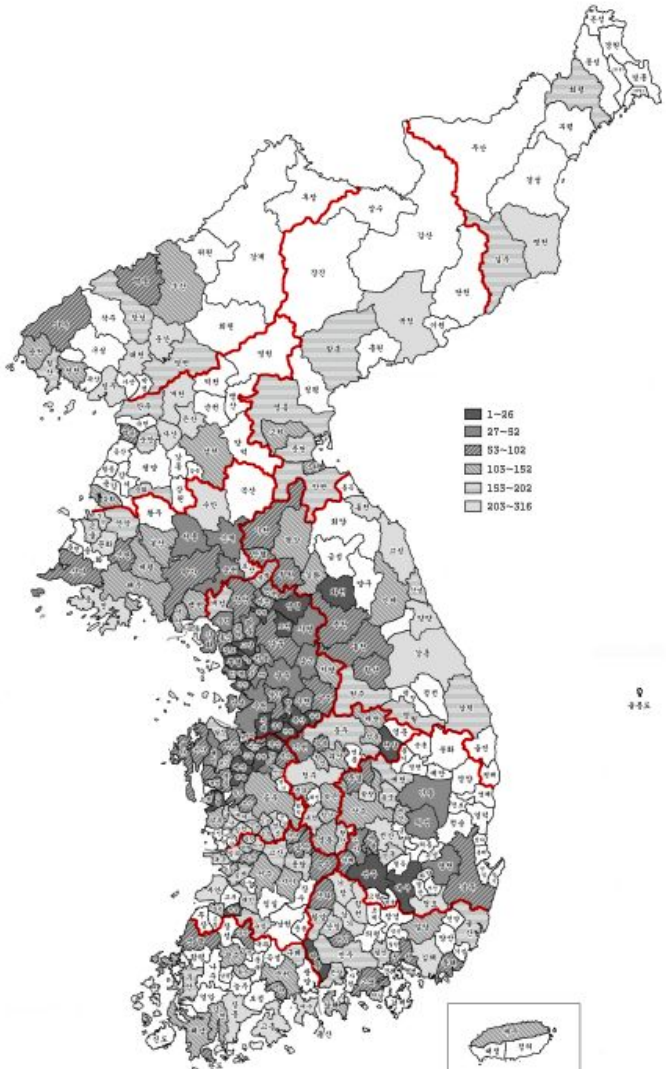
참여도가 높은 지역의 이유를 해명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참여도가 낮은 지역들은 또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일 것이다. 절대수치나 상대비율 모두에 있어 전혀 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지역은 상당히 동일하다. 크게 보자면 전북 남부, 전남 중부, 경남 중서부, 경북 북동부, 강원 동부, 황해 북부, 평남 중서부와

19) 각 군의 인구는 1907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월보상의 수치를 근거로 하였다. 비록 1907년 인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군별, 도별 인구차이는 인구의 그 절대치와 상관없이 1911년의 인구차이와 그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907년과 1911년 사이에 어떤 특정지역에 아주 특별한 사안이 있어 일반적 인구증가와 의미 있게 다른 모습을 갖는 경우를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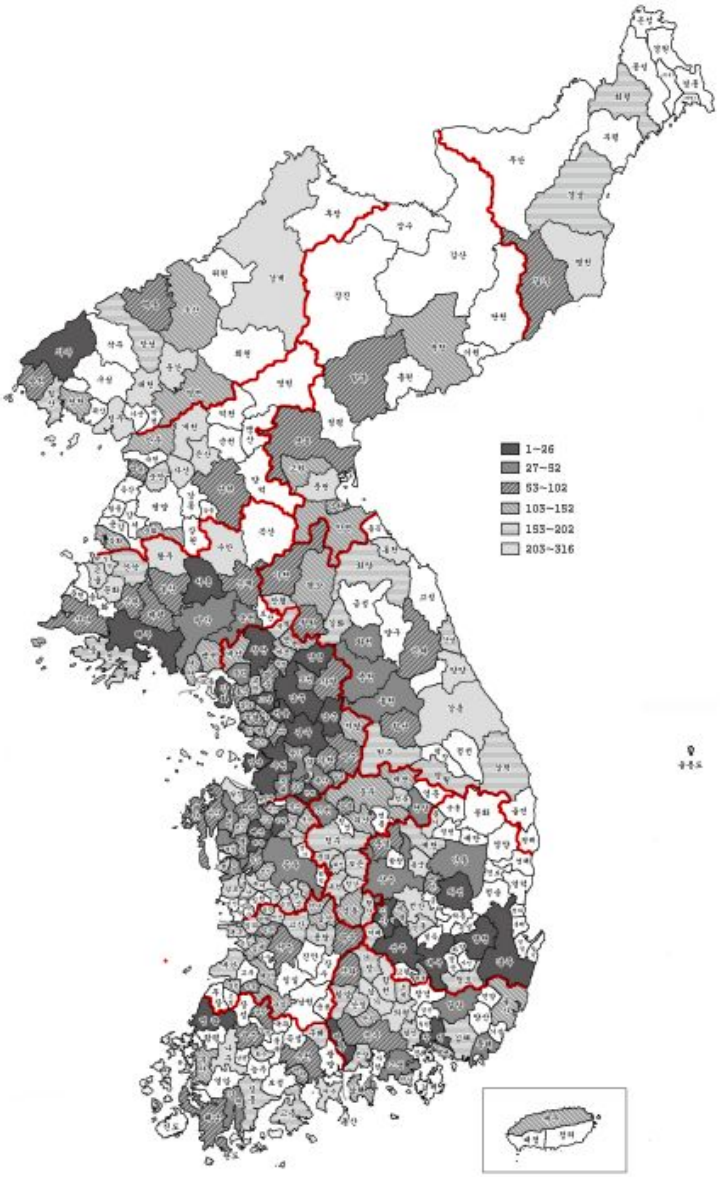
동북부, 평북 동북부가 눈에 띄인다. 함남북은 해안지역 군들에 미약하지만 일관된 참여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도 수준을 넘어 일반적인 역사, 사회적 배경을 보다 강하게 검토하게 하는, 특이하게 주목할 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경기도에서 개성이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왜 일까. 조선왕조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 근기적 심성이 개성에서는 통하지 않는가. 경북 안동과 예안은 남인의 핵심적 지역인데 그것이 어떤 맥락 하에서 저조한 참여도와 과연 관계를 가질지도 해명여하에 따라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경기도 영평, 가평, 포천은 기호학파의 거점 지역인데 이것은 이 지역의 강도 높은 참여도와 관계가 있는가. 전북 남부의 무장 고창 고부 남원 임실 운봉은 동학의 중심지인데 조용하고, 반면에 같은 동학의 거점지였던 하동은 어떤 이유로 가장 강력한 참여도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경북 중남부의 칠곡 청도 선산은 도내 수부에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참여도가 그렇게 낮은가. 평남의 평양지역은 어떻게 하여 그렇게 냉담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하고 조직적이지 않는가. 등이 주요한 관찰 결과들이면서 동시에 해명을 요구하는 지점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림 1〉 참여인원수순



〈그림 2〉 참여인원대 군별인구비순



6. 결론

국채보상운동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로 보아서 214개 군 677면, 한말 318개 군 지역에서 대중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주요 참여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등 근기지역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도 다종다양한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참여양상은 한말 조선왕조의 사회유지력 및 통제력의 지역적 범위를 한 눈에 시각화할 수 있다. 총 참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총 30여만 명으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개별 정보들은 참여자의 구성과 그들의 한말 조선사회에서의 위치와 위상, 운동력을 가늠하게 한다. 국채보상운동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1907년 2월에 시작되어 사실상 7월에 종식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촉발과 종식의 시점 확인은 한말, 특히 1907년 고종 양위에 이르는 정치사의 숨은 그림을 찾게 한다. 의연의 총액은 그때 당시나 이후 많은 연구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18만 여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총액과 참여자들의 평균 의연 액수와 그 인원 등은 이 운동의 실제 의미가 다만 국채를 갚는다는 하나의 단선적 목표의 실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되기'라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아래로부터의' 자기 캠페인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참여자의 운동 이전과 이후의 행적들을 빅데이터 수준의 자료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이 운동의 진면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군별 의연자 및 의연액 총합〉

도	현재 군	1907년 군	개인 의연자 합(A)	개인 의연자 의연액합(B)	집단의연 추정인원 합(C)	집단의연의 연액합 (D)	인원 총합 (A+C)	의연액 총합 (B+D)
강원	고성*	간성	178	59.410	150	100.000	328	159.410
강원	강릉	강릉	154	593.970	0	0	154	593.970

강원	고성*	고성*	60	31.750	100	20.000	160	51.750
강원	김화	금성	63	47.000	0	0	63	47.000
강원	김화	김화	277	132.700	0	0	277	132.700
강원	철원	삭녕	169	52.350	19	3.700	188	56.050
강원	삼척	삼척	287	204.700	35	7.000	322	211.700
강원	이천*	안협	371	82.900	0	0	371	82.900
강원	양구	양구	2	30.000	0	0	2	30.000
강원	양양	양양	135	129.600	0	0	135	129.600
강원	영월	영월	473	172.150	0	0	473	172.150
강원	원주	원주	332	221.050	6	11.200	338	232.250
강원	이천*	이천*	1377	592.190	238	47.300	1615	639.490
강원	인제	인제	1025	350.475	34	6.700	1059	357.175
강원	철원	철원	986	480.200	36	7.100	1022	487.300
강원	춘천	춘천	2051	971.290	1018	203.120	3069	1174.410
강원	통천	통천	105	93.600	0	0	105	93.600
강원	평강	평강	303	105.650	75	14.900	378	120.550
강원	평창	평창	6	5.000	0	0	6	5.000
강원	울진	평해	1	0.050	0	0	1	0.050
강원	홍천	홍천	1821	986.725	185	48.505	2006	1035.230
강원	화천	화천	2287	871.950	100	21.000	2387	892.950
강원	회양	회양	452	154.100	0	0	452	154.100
강원	횡성	횡성	1184	458.250	266	53.100	1450	511.350
경기	-	-	99	13.220	0	0	99	13.220
경기	가평	가평	1401	679.360	429	86.800	1830	766.160
경기	강화	강화	3654	3034.145	2534	509.200	6188	3543.345
경기	개성	개성	707	843.360	225	45.000	932	888.360
경기	고양	고양	3629	1978.000	65	13.000	3694	1991.000
경기	시흥	과천	1076	612.960	70	14.000	1146	626.960
경기	광주*	광주*	3854	2429.320	479	95.625	4333	2524.945
경기	강화	교동	625	411.980	0	0	625	411.980
경기	파주	교하	885	198.245	0	0	885	198.245
경기	김포	김포	1130	343.190	13	2.500	1143	345.690
경기		남양	3435	2323.100	408	89.600	3843	2412.700
경기	연천	마전	397	114.850	0	0	397	114.850

경기	부천	부평	1495	635.315	20	4.000	1515	639.315
경기	연천	삭녕	128	97.550	75	15.000	203	112.550
경기		서울	2540	1402.740	383	76.480	2923	1479.220
경기		수원	4738	2066.150	1944	422.035	6682	2488.185
경기		시흥	724	415.710	82	16.400	806	432.110
경기		안산	1972	1241.705	225	45.000	2197	1286.705
경기	안성	안성	2704	1522.410	664	132.500	3368	1654.910
경기	양평	양근	3119	1541.815	241	48.100	3360	1589.915
경기	안성	양성	1274	455.900	0	0	1274	455.900
경기	양주	양주	3926	1427.580	362	90.400	4288	1517.980
경기	용인	양지	920	474.585	30	6.000	950	480.585
경기	김포	양천	693	490.535	0	0	693	490.535
경기	여주	여주	1525	1154.385	119	23.800	1644	1178.185
경기	연천	연천	565	296.650	270	54.000	835	350.650
경기	포천	영평	2264	958.280	57	11.300	2321	969.580
경기	용인	용인	1631	652.790	225	54.775	1856	707.565
경기	이천	음죽	1202	747.495	0	0	1202	747.495
경기	이천	이천	1726	644.670	0	0	1726	644.670
경기		인천	1052	624.605	280	66.000	1332	690.605
경기	장단	장단	2755	979.405	286	57.250	3041	1036.655
경기	연천	적성	1280	730.960	0	0	1280	730.960
경기		죽산	2376	924.920	39	7.800	2415	932.720
경기	양평	지평	404	434.900	127	25.400	531	460.300
경기	진위	진위	1621	792.705	432	86.110	2053	878.815
경기	김포	통진	1052	316.380	225	45.000	1277	361.380
경기	파주	파주	1626	525.810	3	0.700	1629	526.510
경기	진위	평택	191	240.590	73	0	264	240.590
경기	포천	포천	2219	1478.505	269	53.820	2488	1532.325
경기	개성	풍덕	1780	843.865	288	57.450	2068	901.315
경남	-	-	63	86.408	0	0	63	86.408
경남	?	?	2	10.000	0	0	2	10.000
경남	통영	거제	3	8.600	0	0	3	8.600
경남	거창	거창	257	309.180	5	1.000	262	310.180
경남	고성	고성	1563	517.410	187	37.400	1750	554.810

경남		곤양	221	236.645	19	3.800	240	240.445
경남	동래	기장	43	94.300	0	0	43	94.300
경남	김해	김해	404	249.620	0	0	404	249.620
경남	남해	남해	1069	565.920	0	0	1069	565.920
경남	산청	단성	674	496.400	200	40.000	874	536.400
경남	동래	동래	1139	969.405	5	1.000	1144	970.405
경남	마산	마산	6	49.160	64	12.700	70	61.860
경남	밀양	밀양	1129	988.770	2185	437.930	3314	1426.700
경남	부산	부산	961	541.570	44	8.700	1005	550.270
경남	사천	사천	3	2.600	0	0	3	2.600
경남	산청	산청	324	196.090	85	17.000	409	213.090
경남	합천	삼가	179	175.900	0	0	179	175.900
경남		안의	1256	644.190	15	3.000	1271	647.190
경남	양산	양산	11	49.200	0	0	11	49.200
경남	울산	언양	7	2.300	0	0	7	2.300
경남	창녕	영산	1	0.600	0	0	1	0.600
경남	울산	울산	850	554.770	0	0	850	554.770
경남	창원	웅천	823	266.610	15	3.000	838	269.610
경남	의령	의령	112	101.400	0	0	112	101.400
경남	통영	진남	453	395.950	210	42.000	663	437.950
경남	진주	진주	1262	1062.850	184	106.820	1446	1169.670
경남	창녕	창녕	19	119.200	0	0	19	119.200
경남	창원	창원	2611	2697.005	2176	459.170	4787	3156.175
경남	합천	초계	272	187.000	0	0	272	187.000
경남	하동	하동	5068	1746.920	0	20.000	5068	1766.920
경남	함안	함안	330	328.340	68	13.650	398	341.990
경남	함양	함양	435	284.200	0	0	435	284.200
경남	합천	합천	88	36.200	150	68.400	238	104.600
경북	김천	개령	907	458.300	0	0	907	458.300
경북	경산	경산	1	1.000	0	0	1	1.000
경북	경주	경주	3035	1523.912	3326	666.515	6361	2190.427
경북	고령	고령	1	2.000	0	0	1	2.000
경북	군위	군위	1	1.000	0	0	1	1.000
경북	김천	김산	2130	1017.470	704	140.600	2834	1158.070

경북	대구	대구	147	1153.400	100	20.000	247	1173.400
경북	문경	문경	940	400.180	458	91.390	1398	491.570
경북	봉화	봉화	38	9.000	0	0	38	9.000
경북	의성	비안	14	55.000	1390	277.400	1404	332.400
경북	상주	상주	1570	1046.980	628	125.240	2198	1172.220
경북	선산	선산	179	206.550	0	0	179	206.550
경북	성주	성주	2731	2562.490	5093	1032.300	7824	3594.790
경북	영천	신녕	1	2.000	0	0	1	2.000
경북	안동	안동	70	68.450	0	0	70	68.450
경북	영일	연일	3	7.000	0	0	3	7.000
경북	영덕	영덕	4	35.000	0	0	4	35.000
경북	영천	영천	3916	1736.414	536	107.000	4452	1843.414
경북	영주	영천*	13	0	38	100.000	51	100.000
경북	안동	예안	1	2.000	0	0	1	2.000
경북	예천	예천	401	276.960	0	0	401	276.960
경북	예천	용궁	190	250.190	0	0	190	250.190
경북	울릉	울도	102	198.000	0	0	102	198.000
경북	의성	의성	830	557.690	4060	814.800	4890	1372.490
경북	칠곡	인동	201	156.050	148	0	349	156.050
경북	경산	자인	1	2.000	0	0	1	2.000
경북	김천	지례	446	283.080	0	0	446	283.080
경북	청도	청도	277	789.080	10	2.000	287	791.080
경북	영일	청하	0	0	63	12.665	63	12.665
경북	영주	풍기	76	18.800	609	121.800	685	140.600
경북	상주	함창	79	270.000	0	0	79	270.000
경북	달성	현풍	470	520.700	21	4.000	491	524.700
경북	영일	흥해	36	32.500	8	1.500	44	34.000
서울	서울	서울	9686	12160.555	1713	432.250	11399	12592.805
전남	강진	강진	1799	913.860	55	14.220	1854	928.080
전남	광주	광주	1300	1638.065	166	37.460	1466	1675.525
전남	구례	구례	453	142.945	0	0	453	142.945
전남	나주	나주	117	279.050	15	3.000	132	282.050
전남		낙안	953	482.980	1489	297.360	2442	780.340
전남	나주	남평	5	5.500	0	0	5	5.500

전남	화순	능주	2	8.000	0	0	2	8.000
전남	담양	담양	1442	733.922	240	48.000	1682	781.922
전남	화순	동복	15	32.500	0	0	15	32.500
전남	목포	목포	163	550.200	0	0	163	550.200
전남	무안	무안	396	266.390	456	91.190	852	357.580
전남	보성	보성	14	15.320	128	25.600	142	40.920
전남	순천	순천	1187	662.820	10	2.000	1197	664.820
전남	여수	여수	108	63.800	0	0	108	63.800
전남	영광	영광	2343	1753.380	120	24.000	2463	1777.380
전남	영암	영암	29	172.000	0	0	29	172.000
전남	완도	완도	1355	663.110	119	23.800	1474	686.910
전남	장성	장성	11	100.000	0	0	11	100.000
전남		장흥	365	132.000	0	0	365	132.000
전남	제주	제주	1349	661.390	150	160.000	1499	821.390
전남	무안	지도	827	360.746	271	54.750	1098	415.496
전남	함평	함평	61	84.750	0	0	61	84.750
전남	해남	해남	1161	1483.100	739	147.800	1900	1630.900
전남	화순	화순	471	168.900	0	0	471	168.900
전남	고흥	흥양	233	171.800	0	0	233	171.800
전북	정읍	고부	2	4.000	0	0	2	4.000
전북	전주	고산	150	140.100	33	6.500	183	146.600
전북	군산	군산	208	218.480	0	0	208	218.480
전북	금산	금산	963	820.710	75	15.000	1038	835.710
전북	김제	김제	412	435.340	130	26.000	542	461.340
전북	남원	남원	26	89.000	0	0	26	89.000
전북	김제	만경	436	328.880	0	0	436	328.880
전북	고창	무장	1	1.000	0	0	1	1.000
전북	무주	무주	1572	823.871	43	8.597	1615	832.468
전북	부안	부안	167	263.730	120	24.000	287	287.730
전북	순창	순창	619	427.200	0	0	619	427.200
전북	익산	여산	134	68.500	76	15.100	210	83.600
전북	옥구	오천	49	22.000	0	0	49	22.000
전북	옥구	옥구	57	16.970	32	6.450	89	23.420
전북	진안	용담	222	328.150	0	0	222	328.150

전북	익산	용안	107	43.600	0	0	107	43.600
전북	남원	운봉	7	117.000	0	0	7	117.000
전북	익산	익산	1418	681.380	259	58.306	1677	739.686
전북	임실	임실	34	30.300	0	0	34	30.300
전북	익산	임피	167	229.420	0	0	167	229.420
전북	장수	장수	67	31.600	0	0	67	31.600
전북	전주	전주	1545	1445.820	18	3.520	1563	1449.340
전북	정읍	정읍	1951	1095.096	101	20.000	2052	1115.096
전북	금산	진산	518	89.300	0	0	518	89.300
전북	진안	진안	443	157.860	100	20.000	543	177.860
전북	정읍	태인	270	531.240	134	26.800	404	558.040
전북	익산	함열	450	537.855	120	24.000	570	561.855
전북	고창	흥덕	551	60.710	0	0	551	60.710
충남	-	-	793	259.160	0	0	793	259.160
충남	홍성	결성	779	493.710	226	287.800	1005	781.510
충남	공주	공주	1422	710.160	364	74.250	1786	784.410
충남	보령	남포	20	18.800	191	37.640	211	56.440
충남	논산	노성	95	39.750	17	3.400	112	43.150
충남	당진	당진	129	119.400	110	26.000	239	145.400
충남	예산	대흥	2735	1090.980	0	0	2735	1090.980
충남	예산	덕산	230	82.500	353	70.120	583	152.620
충남	당진	면천	1127	515.015	55	10.900	1182	525.915
충남	천안	목천	666	344.625	10	1.900	676	346.525
충남	보령	보령	1799	586.890	55	10.900	1854	597.790
충남	부여	부여	162	77.600	110	22.000	272	99.600
충남	서천	비인	37	9.900	0	0	37	9.900
충남	서산	서산	1771	925.590	0	0	1771	925.590
충남	서천	서천	40	17.200	0	0	40	17.200
충남		석성	176	80.575	54	10.625	230	91.200
충남	아산	신창	1709	593.750	45	9.000	1754	602.750
충남	아산	아산	834	305.300	359	71.700	1193	377.000
충남	연기	연기	39	25.500	0	0	39	25.500
충남	논산	연산	174	61.950	6	1.100	180	63.050
충남	예산	예산	2163	842.590	268	53.675	2431	896.265

충남	보령	오천	293	101.450	48	9.500	341	110.950
충남	아산	온양	661	452.620	2522	502.775	3183	955.395
충남	논산	은진	401	261.580	44	8.880	445	270.460
충남	부여	임천	77	31.100	0	0	77	31.100
충남	연기	전의	156	70.550	86	16.800	242	87.350
충남	청양	정산	298	157.430	345	138.850	643	296.280
충남	천안	직산	2230	1272.370	561	111.750	2791	1384.120
충남	대전	진잠	456	335.755	41	8.100	497	343.855
충남	천안	천안	1004	345.910	0	0	1004	345.910
충남	청양	청양	1137	376.200	222	43.900	1359	420.100
충남	서산	태안	1177	543.435	8	1.500	1185	544.935
충남	서천	한산	11	5.000	0	0	11	5.000
충남	서산	해미	1425	403.510	273	53.950	1698	457.460
충남	부여	홍산	123	20.100	159	31.500	282	51.600
충남		홍주	1288	464.870	434	98.035	1722	562.905
충남	대전	회덕	111	112.900	16	3.200	127	116.100
충북	괴산	괴산	507	201.305	60	12.000	567	213.305
충북	단양	단양	2239	635.090	0	0	2239	635.090
충북	청주	문의	317	128.850	10	2.000	327	130.850
충북	보은	보은	395	166.575	35	7.000	430	173.575
충북	괴산	연풍	9	9.900	0	0	9	9.900
충북	영동	영동	481	214.625	75	15.000	556	229.625
충북	옥천	옥천	279	95.245	80	16.000	359	111.245
충북	음성	음성	1592	882.280	111	22.100	1703	904.380
충북	음성	음죽	101	32.925	0	0	101	32.925
충북	제천	제천	496	204.500	162	32.150	658	236.650
충북	진천	진천	2235	1680.665	13	2.500	2248	1683.165
충북	옥천	청산	174	73.500	0	0	174	73.500
충북		청안	321	217.850	333	94.200	654	312.050
충북	청주	청주	309	191.050	50	9.700	359	200.750
충북	제천	청풍	356	128.370	0	0	356	128.370
충북		충주	852	420.295	25	5.000	877	425.295
충북	영동	황간	165	115.700	15	3.000	180	118.700
충북	보은	회인	324	102.500	0	0	324	102.500

평남	강동	강동	22	20.300	0	0	22	20.300
평남	강서	강서	20	9.850	0	0	20	9.850
평남	개천	개천	82	43.600	155	30.900	237	74.500
평남	맹산	맹산	25	41.000	0	0	25	41.000
평남		삼화	803	1208.600	100	20.000	903	1228.600
평남	중화	상원	1	1.000	0	0	1	1.000
평남	성천	성천	1193	831.600	0	0	1193	831.600
평남	평원	숙천	29	22.800	0	0	29	22.800
평남	평원	순안	168	113.000	20	4.000	188	117.000
평남	순천*	순천*	2	0.600	0	0	2	0.600
평남	안주	안주	691	1134.434	270	54.000	961	1188.434
평남	평원	영유	1495	990.875	0	0	1495	990.875
평남	용강	용강	25	5.050	0	0	25	5.050
평남	순천*	은산	113	128.075	68	13.500	181	141.575
평남	순천*	자산	148	62.600	0	0	148	62.600
평남	중화	중화	511	424.470	100	20.000	611	444.470
평남	평양	평양	48	33.500	16	3.225	64	36.725
평북	-	-	10	78.000	0	0	10	78.000
평북	박천	가산	62	468.400	150	300.000	212	768.400
평북	강계	강계	189	121.350	0	0	189	121.350
평북	정주	곽산	17	6.000	0	0	17	6.000
평북	구성	구성	24	40.650	0	0	24	40.650
평북	박천	박천	5	2.300	0	0	5	2.300
평북	벽동	벽동	1087	345.350	1832	366.250	2919	711.600
평북	선천	선천	686	424.950	25	5.000	711	429.950
평북	영변	영변	990	701.190	320	64.000	1310	765.190
평북	용천	용천	1469	1137.900	0	0	1469	1137.900
평북	운산	운산	123	85.500	0	0	123	85.500
평북	의주	의주	4129	3321.984	505	120.700	4634	3442.684
평북	자성	자성	3	11.000	0	0	3	11.000
평북	정주	정주	194	718.700	0	0	194	718.700
평북	창성	창성	172	294.300	25	5.000	197	299.300
평북	철산	철산	266	454.136	321	64.200	587	518.336
평북	초산	초산	365	179.690	606	126.850	971	306.540

평북	태천	태천	164	138.400	0	0	164	138.400
함남	갑산	갑산	13	30.500	0	0	13	30.500
함남	고원	고원	486	369.520	143	34.680	629	404.200
함남	덕원	덕원	23	13.550	0	0	23	13.550
함남	문천	문천	165	161.450	0	0	165	161.450
함남	북청	북청	487	324.170	201	40.400	688	364.570
함남	안변	안변	280	200.580	127	34.800	407	235.380
함남	영흥	영흥	686	794.790	345	93.400	1031	888.190
함남	원산	원산	787	1468.260	230	88.000	1017	1556.260
함남	정평	정평	1	15.000	0	0	1	15.000
함남	함흥	함흥	569	1663.640	951	193.200	1520	1856.840
함남	홍원	홍원	7	10.500	0	0	7	10.500
함북	경성	경성	165	163.470	0	0	165	163.470
함북	길주	길주	1269	1199.140	50	10.000	1319	1209.140
함북	명천	명천	169	396.440	18	3.500	187	399.940
함북	무산	무산	1	1.000	0	0	1	1.000
함북	회령	회령	290	168.160	0	0	290	168.160
황해	-	-	0	0	33	6.600	0	0
황해	?	?	35	8.360	0	0	35	8.360
황해	장연	강령	733	430.590	0	0	733	430.590
황해	곡산	곡산	0	0	40	8.000	40	8.000
황해	금천	금천	1880	882.500	332	66.400	2212	948.900
황해	신천	문화	149	102.770	0	0	149	102.770
황해	연백	백천	731	404.000	59	11.500	790	415.500
황해	봉산	봉산	1563	1134.400	100	20.000	1663	1154.400
황해	서흥	서흥	2714	1063.700	0	0	2714	1063.700
황해	송화	송화	1	0.210	0	0	1	0.210
황해	수안	수안	68	75.000	188	37.600	256	112.600
황해	신계	신계	1674	610.700	148	29.500	1822	640.200
황해	신천	신천	1047	617.640	102	20.050	1149	637.690
황해	안악	안악	406	722.150	23	4.600	429	726.750
황해	연백	연안	984	641.620	97	22.925	1081	664.545
황해	옹진	옹진	349	401.100	0	0	349	401.100
황해	은율	은율	62	33.700	18	3.500	80	37.200

황해	은율	장련	0	0	150	100.000	150	100.000
황해	장연	장연	1280	1092.485	341	68.100	1621	1160.585
황해	재령	재령	1272	1376.175	0	0	1272	1376.175
황해		토산	32	38.915	10	2.000	42	40.915
황해	평산	평산	2052	713.015	40	8.000	2092	721.015
황해	송화	풍천	20	18.900	0	0	20	18.900
황해	해주	해주	2316	3305.000	609	121.700	2925	3426.700
황해	황주	황주	147	205.700	0	0	147	205.700
관리			1734	615.625	267	53.300	2001	668.925
군인			6030	2278.690	468	93.600	6498	2372.290
단체			109	67.350	0	0	109	67.350
미국			426	1,044.914	0	0	426	1,044.914
일본			133	149.24	73	14.5	206	163.74
노령			77	120.000	0	0	77	120.000
지역미상			1,451	1,113.28	366	313.6	1,817	1,426.88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대구광역시 편, 『국채보상운동 제92주년 기념 국채보상운동논문선집』, 1999.
대구광역시 편, 『국채보상운동 100주년기념자료집』(전5권), 2007.
김기주, 「광주, 전남지방의 국채보상운동」,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10, 1996.
김기주, 「전북지방의 국채보상운동」, 전북사학회, 『전북사학』제19,20합집, 1997.
김도형, 「한말 대구지역 상인층의 동향과 국채보상운동」, 계명사학회, 『계명사학』8, 1997.
김상기, 「한말 태극학회의 사상과 활동」,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교남사학』1, 1985.
김형목, 「충남지방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35, 2010.
박용옥, 「국채보상운동의 여성 참여」,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사총』12,13합집, 1968.
이동언, 「김광제의 생애와 국권회복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12, 1998.
이송희,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이대사원』15, 1978.
정진석, 「국채보상운동과 언론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 1993.
조항래,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국채보상운동사』, 2007.
최준, 「국채보상운동과 프레스 캠페인」, 백산학회, 『백산학보』3, 1967.

(**투고일**: 2015. 11.16 **심사완료일**: 2015. 12.9 **게재확정일**: 2015. 12.11)

한상구
소속: 역사문제연구소
주소: 서울 동대문구 창덕궁1길 38 MS빌딩 701호
전화번호: 02-3672-4191
전자우편: hskoo59@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Nationwide Development Phase of Government Bond-Redemption Campaign in 1907

Han, Sang-Koo

Government Bond-Redemption Campaign was achieved in 318 counties area by 1907 through the huge popular participation. Major participating locations was the center of Seoul, Gyeonggi, Chungcheong area, such as 'keun-ki'. Contributors entire personnel was identified as approximately 300,000 people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study. Individual information on the participants and the cutting position and phase of locomotion in the construction and shipbuilding their social partners. This paper has identified the ending point of the Government Bond-Redemption Campaign in July 1907. Identification of the end point of this exercise is triggered in 1907 and find the hidden picture of political history, ranging from the King Gojong to abdicate. The total donations were several claims from that time, and after much research. The study was compiled by 180,000 Won. Total donations, the average donation amount and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etc. shows that this movement does not only the realization of one objective of sovereign debt repayments. It should be confirmed that there was in his campaigns 'from below' called 'to be national'. This study attempts to perform the data processing of big data level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exercise in the future. It will try a new approach for the sake of the Government Bond-Redemption Campaign.

Key word: Government Bond-Redemption Campaign, Collective action,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Big Data, Data Processing